

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! 샅 16:23-31절

【도입 질문】

1.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, 자신의 힘으로 확실하게 책임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?
2. 내가 가진 것들이 누군가 나에게 빌려준 것이라면, 어떤 자세로 활용해야 되겠습니까?
3.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?

【본문 질문 및 설교 요약】

♥ 첫째, 블레셋 사람들의 축제 (23-27절)

11) 블레셋 사람들은 누구의 도움으로 삼손을 포로로 잡았다고 믿었습니까? (23-24절)

12) 천하무적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로 부터 어떤 조롱을 당하였습니까? (25절)

13)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을 받던 삼손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? (26-27절)

♥ 둘째, 삼손의 마지막 기도 (28-31절)

21)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간구했습니까? (28절)

22) 삼손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? (29-31절)

“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” (마 28:20절)

【되새김질을 위한 적용과 나눔】

1.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있던 암울한 시기에 태어났습니다.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택함을 받은 삼손이 지켜야 할 규례는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. (사사기 13:3-7절 참고)
2. 나실인으로 태어난 삼손이 이방인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충격적인 계획에 부모들의 반응과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게 달랐는지 이야기해 봅시다. (사사기 14:1-6절 참고)
3. 삼손의 불순종으로 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와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 때, 그의 힘과 능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. (사사기 16:20-21, 28-30절 참고)
4. 블레셋의 압제 아래서 방탕한(?) 사사로 살았던 삼손의 삶은 일제 강점기에 방탕한(?) 양반으로 살았던 파락호 ‘김용환’의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. 삼손의 삶과 김용환의 삶(네이버/“파락호 ‘김용환’, 일제 강점기 한 노름꾼의 대반전 이야기” 참고)은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, 어떤 점에서 다른 지 이야기해 봅시다.

【결단과 섬김을 위한 기도】

1. 적용을 위한 기도: 말씀이 나에게 삶이 되게 하소서!

- 1)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소서!
- 2) 타락한 세상에서, ‘뱀같이 지혜롭게, 비둘기같이 순결하게’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!
- 3)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!

2. 공동체를 위한 기도: <코로나 종식과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>

- 1)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게 하소서!
- 2) 이 땅의 무너진 가치관을 회복시켜 주소서!
- 3) 이 땅에 성령의 부흥을 주소서!

“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” (마 28:20절)